

내 단편소설집으로 사람들의 우울한 감정 위로하고 공감하기

제 출 자: 강 소 현
지도교사: 유 아 름

초록

제가 겪었던 우울한 감정들과 내가 보아온 우울한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들을 담아낸 내 단편소설집으로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공감하고 위로받으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논문에 목적입니다. 작품을 만든 방식으로는 우울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읽고 습작을 쓴 뒤 작품을 구상하고 작품을 썼습니다.

작품은 각 3개를 적었고 소설집의 큰 주제는 기준과 시선으로 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학교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고 본인도 고민한 후 퇴고를 거쳤습니다. 평가 및 공유는 작품 발표 때와 미리강 방에 비치해 두었고 제가 직접 몇몇을 찾아갔습니다. 평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저의 의도에 공감해주신 의견이 많았습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 연구의 동기
 -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진행

II. 본론

1. 우울함의 정의
2. 단편소설의 정의
 - 1) 단편소설의 정의
 - 2) 내가 쓸 단편 소설
 - 3) 문학치료
3. 작품 구상
 - 1) 관련된 작품 보고 습작 쓰기
4. 작품 쓰기
 - 1) 소설 쓰기
 - 2) 작품 설명
5. 작품 비치

III. 결론

1. 작품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 3) 자기평가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감사한 분들>

<참고문헌>

<부록>

1. 일지
2. 습작

I.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연구의 동기

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바로 타자를 칠 수 있게 되어서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유라면 초등학교에서는 글을 전부 손글씨로 써야하는 바람에 손글씨가 싫어, 글쓰기 까지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글쓰기 개인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고 ‘그럼 타자로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 재미없으면 관두지 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재미있어, 우울한 때 일기처럼 누구한테 털어놓듯이 쓰기 시작했던 게 한편 두 편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나 혼자 쓰고 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책을 보고 위로받거나 공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보고 조금이라도 나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또한 많은 종류의 글 중 굳이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서입니다.

2) 연구의 목적

제가 느낀 우울한 감정들과 제 주위에 우울한 사람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을 쓰고 학교 학생들 중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위로 받고 공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울한 감정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 연구의 진행

작품 구상

우울한 감정에 대한 소설이나 수필, 그림 등을 보고 구상 하여 습작을 씁니다.

작품 만들기

단편 소설을 써 단편 소설집을 만듭니다.

작품 공유

학교 내 도서관에 비치합니다. 학교 사람들에게 공유합니다. 정말 위로나 공감을 받았는지 감상이 어떤지 등 피드백이나 감상평을 받습니다. 또한 단편 소설집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도 받습니다.

II. 본론

1. 우울함의 정의

근심스럽거나 답답하여 활기가 없는 상태 혹은 반성과 공상이 따르는 가벼운 슬픔. 이라고 사전적인 정의가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우울이라는 용어는 슬프거나 저조한 기분에서부터 자살을 고려하게 만드는 심각한 감정 상태까지를 모두 일컫습니다.

우울감은 불안감이나 분노처럼 몸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우울감에 빠지면 점차 사는 것이 재미없어지고 불안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도 시들하고, 감정적 자극이 적어져 인생의 즐거움이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더 길어지면 식욕이 떨어지고 잠도 깊이 잘 수 없어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된다. 여기서 더 발전하여 병적인 우울 상태에 이르면 스스로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를 우울증이라 일컫습니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마음의 감기라고도 불립니다. 필수 증상 중 우울한 기분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 소아에게는 쉽게 화를 내는(과민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에서의 흥미 또는 즐거움의 상실 때문에 대인 관계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며, 식욕은 감소하는 경우나 증가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수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면증이 나타나지만, 일부는 수면 과다를 보이기도 합니다. 피로감의 경우, 신체적 운동이나 힘든 활동을 하지 않아도 피곤함을 호소합니다.¹⁾ 제 논문에서의 우울함이라는 말의 범위는 병이 아닌 상태까지를 가리킵니다.

2. 단편소설의 정의

1) 단편소설의 정의

소설이란 현실의 인생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건을 문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가공한 가상의 산문으로 정리한 이야기로 단편소설은 소설의 길이와 성격에 따른 분류의 한 형태로서 장편소설(掌篇小說)보다는 길지만 중편소설(中篇小說)보다는 짧은 이야기를 담은 형태입니다. 대략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의 길이로 일반적으로 삼십분이나 두 시간 내외에 읽을 수 있는 길이로 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 장애 [depressive disorders] (심리학용어사전, 2014. 4. 한국심리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우울과 슬픔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HIDOC)

단편소설은 그 분량적 제약 때문에 단순한 줄거리와 치밀한 구성과 간결한 문체를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단편소설 보다 더 짧은 소설은 엽편(葉片)나 못잎처럼 작은 지면에 쓰인 소설이나 콩트, 또는 손바닥 掌(장)을 써서 장편(掌篇)소설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주로 원고지 4-20매 분량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주로 프랑스에서 발달했습니다.²⁾

2) 내가 쓸 단편 소설

제가 쓸 단편 소설집의 장르는 성장 소설으로 한 인물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굳이 성장 소설을 선택한 이유로는 우선 가장 제 소설을 많이 접할 대상인 간디인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문학 중 가장 대중화 되어 있는 문학 중의 하나가 바로 성장소설입니다. 그리고 내 주제에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량은 원고지 130매 내외의 길이로 단편 소설에 해당하며 사건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평면적 구성이며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인물인 주인공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1인칭 시점 소설 2개와 서술자가 모든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심리, 감정 등을 분석하여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전지적 작가시점.³⁾ 1개로,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편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가장 흥미가 있어서입니다.

3) 문학치료

문학치료에는 시, 소설, 수필, 동화 등뿐 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주는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사진, 그림, 등 시·청각 매체까지 모두 활용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크게 독서치료, 학습 치료, 자기서사치료, 시 치료, 자기서사식 글쓰기 치료 등으로 진행됩니다. ⁴⁾ 이처럼 많은 갈래가 있지만 그중 소설 읽기의 효과는 모든 소설에는 서사가 존재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사를 자신의 서사의 빛대어 생각하여 공감함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⁵⁾

2) [네이버 지식백과] 소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소설 (중학생이 즐겨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네이버 지식백과] 단편소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콩트 (시사상식사전)

3) [네이버 지식백과] 시점 (중학생이 즐겨 찾는 국어 개념 교과서)

4) 소설의 치유적 기능 고찰:첨부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원 예술대학원 문학예술학과 소설전공 석사학위 논문 성상희 2013년 8월)

5) 소설 읽기를 통한 글쓰기가 청소년의 치유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김형원 2015년 5월)

3. 작품 구상

1) 관련된 작품 보고 습작 쓰기

관련된 작품으로는 조금 우울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주로 읽었습니다. 읽은 것으로는 먼저 단편소설은 최상희 작가님의 '델 문도' 앨런 쉘리토 작가님의 '장거리 주자의 고독'과 김애란 작가님의 '비행운', '달려라 아비'. 김언수 작가님의 '쩍' 등을 참조하였고 장편소설로는 김사과 작가님의 '나b책'과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 '피그말 리온 아이들'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은 '나b책'으로 가장 많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라면 여기서 무슨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등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련된 작품을 보고 습작을 썼습니다. 엽편소설 2편과 수필 한편을 습작으로 썼습니다. 엽편소설의 제목으로는 「너는 모르겠지만」과 「내일」 그리고 수필의 제목으로는 「나는 자주 울고 무너진 밤에 잠을 청하진 못했다」가 있습니다. 습작 또한 부록에 첨부할 예정이니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작품 쓰기

1) 소설 쓰기

소설을 쓰기 위해서 먼저 뼈대를 구상하였습니다. 소설의 뼈대는 이야기가 산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작가가 의도한 바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또는 조금 더 쉽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짠 시나리오 「모호한 궤도」로 2학년 때부터 머릿속으로 조금씩 구성하던 이야기를 머리 밖으로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내일은 아마 없을테니」를 구상하였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설을 가장 마지막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각각 소설의 시나리오를 구상하던 중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좀 더 읽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의 주제를 잡았고 사람들이나 자신의 시선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후에는 소설에 살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작품을 돌아가며 쓰다 후반에는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을 끝낸 후 다음 작품을 끝냈습니다. 작품이 다 끝난 후에는 교내의 몇 분께 찾아가 퇴고를 할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말해주신 퇴고 할 때 참고한 내용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 문장을 짧게 끊어 전개하자.
- 모두 설명하지 말고 여백을 남겨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자.
- 감정선이 과장스럽고 길다.
- 동어반복을 피하자.
- 클리셰를 벗어나자.

- 핵심상황의 묘사가 부족하다.
- 마침표를 빼먹지 말자.
- 생각과 실제 말의 구분이 모호하다.
- 호흡과 리듬이 너무 빠르다.
- 문단을 잘 나누자.
- 막바지로 갈수록 너무 급한 전개.
- 전개가 너무 갑작스럽다.
- 주어를 잘 사용하자.
- 세계관에 관한 설정은 알겠으나 설명이 부족하다.
- 제목과 내용이 맞지 않는다.
- 생각을 작은 따옴표로 표시하자.
- 대사를 큰 따옴표로 표시하자.

특히 문단과 문장의 관한 지적은 자주 받았고 저도 신경썼지만 잘 고쳐지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물론 해주셨지만 말해주신 것 중, 칭찬은 빼고 조언들로만 추렸습니다.

2) 작품 설명

(1) 소설집 전체 설명

제 단편 소설집의 제목은 사람은 「사람은 다만 이름을 찾고 싶었던 까닭이었다」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기 위해 우선 기준과 시선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부터 설명해드리자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먼저 제가 언제 가장 상처를 받고 우울한가를 생각해 본 결과, 저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 자신의 시선이나 기준에 얽매이며 가장 많이 우울하고 상처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선과 기준으로 주제를 잡았고 그렇기에 각자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 자신의 시선과 기준에 얽매이며 자신이 불리고픈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 자신이 불리고픈 이름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람은 다만 이름을 찾고 싶었던 까닭이었다」라는 조금 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는 밝은 분위기의 글을 보며 위로 받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다소 어둡거나 우울한 분위기의 글을 보며 ‘우울해도 괜찮다.’ 라는 식의 위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 다소 우울한 분위기의 소설 두 편과 그것보다는 가벼운 분위기의 소설을 한편 썼습니다. 거기에 작가의 말 하나, 그리고 습작 3개가 들어있습니다. 작가의 말은 이 소

설집의 주제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발췌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말 (발췌)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것은 저의 생각보다 남들의 기준의 한참 벗어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남들의 상식적인 기준 선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조금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등의 이름으로 불릴 때 말이죠. 그런데 남들의 기준선에서 제가 불리고픈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릴 때의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겁이 납니다. 20살에는 당연히 학생. 25살 즈음에는 사원. 그리고는 승진 하여 대리. 그리고는 누군가의 아내 그 뒤에는 누군가의 엄마. 그 뒤에는 어떠한 이름, 이런 식으로 쪽쪽 늘어져갈 저의 이름이 아닌 것들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것이 평균이라 하는 우리는 얼마나 무감했던가요. 남들의 기준선 밖도 안도 아닌 그저 제대로 이름을 부르고, 또 찾고 싶은 마음들이 모여 이런 제목을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주의자에. 우울하고. 모든 언저리의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것들은 제 이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저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의 하나지 저의 이름이 아닙니다. 저를 그저 이름 석자로 봐주시기를 간청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적었지만 이것이 다만 저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은 것처럼 우리는 너무 뻣뻣한 기준선에 스스로를 밀어 넣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갈아내고 깎아내어 어떻게든 그 안에 자신을 맞추지 못해서 안달인 거 아닐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온전히 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에 저를 넣고 그 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것이 조금 신경 쓰였고 두려웠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의 말에는 소설집 제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도 같이 되어있습니다.

(2) 모호한 궤도 설명

가장 먼저 쓴 「모호한 궤도」는 온전한 피해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에게 동생과 함께 여자라는 이유로 학대를 받던 제이가 자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는 당연히 멀어졌고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보면 이상하다고 할 만큼 모두가 먼, 타인의 시선으로는 소위 '좀 그런 애'입니다. 그렇게 제이는 고등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또 타인과의 대립의 끝에 제이는 다시 '좀 그런 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제이는 타인의 시선과 자신의 궤도에 연관 관계라고는 없다는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 또한 앓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룩은 동생이 죽습니다. 자살로요. 마지막으로 한 말은 하고픈 일을 하는 형이 부럽다. 그 말을 뒤로 시룩은 좋아하던 일 같은 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지내던 학교를 떠나 이사 온 곳에서 그는 조금 이상한 애를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부터 최악이던 그 애는 자신의 궤도와 타인의 시선 사이에 연관관계라고는 없어 보입니다. 시룩은 그 애가 조금 궁금해집니다. 둘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이의 동생 자살시도로 말이죠. 동생의 병원과 시룩의 어머니의 병원이 같은 탓에 어쨌든 자주 만나게 된 둘은 서서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해 나갑니다. 그렇게 둘은 계절을 지나오게 되고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끔 삶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애매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궤도에 간섭할 수 있다는 것ですよ. 우리는 서로에게 애매하고 작지만 그래도 기적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ですよ.

제목은 「모호한 궤도」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삶이 언제나 뚜렷하고 명확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호한 궤도에서 누군가에게 기적을 받고 기적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은 제목입니다.

저는 아주 작고 가냘픈 순간에 짓눌려 숨 쉬는 것이 힘든 때가 옵니다. 저는 그것이 장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날씨가 해가 뜨다 가끔 비가 오기도 하는 날씨라면 장마가 온 저의 날씨는 언제나 비가 오다 가끔 해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렇게 제게 장마가 왔을 때 적은 소설입니다. 다소 과장 되거나 부풀려져 적혔지만 결국 제 가냘프고 사소한 일들을 여기에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냘프고 사소한 이야기를 모아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다소 과장 됐지만 어찌 되었든 저와 주변의 이유로 장마가 온 사람의 이야기를 이곳에 적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장마인 그런 이가 다른 장마인 이를 만나 장마가 그치고 가을이 오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축축하게 비가 오는 사람이 또 다른 비오는 사람을 만난다 해서 금세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어느 시인님이 하신 말처럼, 같이 울면 좀 나아지고 좀 덜 창피하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설을 쓴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같이 울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쩌면 제가 그저 끄적인 이야기로 끝일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덜 창피하게 여겼으면 해서 그래서 논문으로 적었습니다. 누군가가 읽어 주었으면 하기에, 그래

서 논문으로 적었습니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진행 되고 작품 중 한 장 정도를 발췌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모호한 궤도」 중 일부 (발췌)

수술이 끝난 때에는 이미 해가 다 저 바깥이 온통 어두웠다. 다행히 너는 오랜 시간이 걸려 살아있는 채로 그 안에서 나오게 됐다. 네가 깨어날 시간이 밤이었으면 좋겠다, 바깥이 전부 까맣게 물들어 네 표정들을 구별할 수 없도록, 나는 자신이 없다. 다른 이의 생명을 해친 것이 두렵다. 도망치고 싶어진다. 자꾸만 숨이 턱턱 막혀서 병원 밖으로 나가 공원에 갔다. 잠시 벤치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젓혀 별을 봤다, 여전히 다르지 않다. 사람과 다르게 별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궤도로 돈다. 하늘엔 별만 있고 달이 없다. 게다가 주변엔 변변찮은 가로등도 하나 없다. 있는 거라곤 제대로 제 할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수명이 다 닳아 버린 깜빡이는 가로등 하나 뿐이다. 숨이 막히게 무거운 어둠이다. 차라리 다행이다. 이대로 질식해 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그때였다. 숨이 막히는 어둠을 걷고 적막을 깬 그건, 그러니까 한시록이었다. 뭘 하는 거지? 재는 참 어디서건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는 재주는 확실히 타고난 것 같다. 조금 더 가서 보자. 저건? 400만원대 s사 망원경? 재가 왜 저런 비싼대다,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 재가 천문 쪽에 관심이 있었던가? 얼씨구, 아 저거 저기 끼면 안 되는데, 어? 저거 저러다가 고장 나는데. 저거 부품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수리하는 것도 비싼데. 아 씨, 진짜. 결국 달려가서 한시록의 뒤에 서서 말을 뱉었다.

그거 그런 식으로 끼면 고장나. 다음부터는 설명서 좀 읽고 조립해. 그렇게 말을 뱉고 서야 나는 상황을 판단하기 시작했다, 한시록은 완전히 나를 이상한 인간처럼 보고 있었다. 아, 쟤장.

진짜 쪽팔린다. 아니 왜 하필 재야? 안 그래도 우리집 사정 다 아는 것 같아서 불편한데 여기 왜 또 와서는. 집이 근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미간을 찌푸린 채로 손바닥에 고개를 묻자, 한시록은 미친 듯이 웃어 재끼기 시작했다. 저러다 숨이 넘어가겠는데 싫을 정도로 말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멈추더니 내게 물었다. 이거 비싼 거야? 이게 장난치나?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그렇다 대답하자 또 다시 한시록은 웃기 시작했다. 웃는 데도 그 웃음이 아까와는 달라 알 수밖에 없었다. 한시록에게도 뭔가 비틀린 구석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건 마치 웃음보다는 울음에 가까워서 웬지 웃는 그 자신보다 주변의 인물들이 슬퍼지는 것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한시록은 나에게 물어 왔다.

이거 접을 줄 알아? 라고. 내가 비록 돈이 없어 망원경을 사본 적은 없지만 웬지 적어도 이 망원경의 주인으로 추측되는 한시록보다는 잘 접을 것 같았다. 그래, 이걸 부수게

둘 수는 없지. 접을 줄 안다고 대충 대답하고 접어줄까 물어보자, 한시룩은 창피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창 망원경을 접고 있는데 갑자기 억울해졌다. 젠장.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나중에 이걸로 협박이나 해서 빌려 달라 해야겠다.

근데 애는 이런 거 모르는 애한테 맡겨도 되나? 내가 아까 분명히 가격을 설명해 주지 않았던가? 실수라도 내가 이걸 부시면 어찌려고? 접을 줄도 모르는 걸 보니 진짜 자기계 아닌 모양인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빌린 사람이 원수라도 되나? 아까 반응도 그렇고 말이야. 뭐,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상관없지. 아, 됐다. 다 접었다. 다 접은 망원경을 건네자 한시룩은 순수한 얼굴로 망원경을 받아들더니 고맙다고는 내게 인사하고 유유히 사라졌다.

재는 진짜 이상한 애야. 나는 다시 확신하며 지이의 병실로 돌아갔다.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라 나름대로의 신선함이 있었다. 아마 이 문을 열면 잠깐 이나마 터졌던 숨통을 또 다시 제 손으로 막게 되겠지만. 그래, 내가 무슨 면목으로 숨을 쉬더라? 나는 살인자다. 사람을 죽였다. 다만, 신체가 죽지 않았을 뿐이다. 죽지 않은 신체에 썩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봐야 정신에 신체마저 따라가 버린다. 아직 죽지 않은 것 뿐 나는 살인자다. 밤의 흐린 윤곽으로 누워있는 지이를 더듬으며 다시금 잊지 않게 새겼다, 나는, 살인자다.

(3) 내일은 아마 없을 테니 설명

두 번째로 쓴 소설의 제목은 「내일은 아마 없을 테니」로 평범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우선 마법이 있는 가상의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마법을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계입니다. 마법은 감정이 없어야만 성공하고 그건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삭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감정이 과잉으로 태어난 주연이라는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과잉이라 그런지 남들에게 배척 받고 배척 받으면서도 자신을 놓지 않아준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포기했고 대학을 가기 싫었지만 갑니다. 가서 여명, 그녀를 만납니다. 여명은 감정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부류죠, 그리고 둘은 마주칩니다. 그의 그림으로, 여명은 그의 그림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그의 그림을 사기에 이릅니다.

둘은 그림이라는 매개로 친해지게 되고 그는 그녀를 동정하게 되고 감정을 돌려주겠다는 계획마저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의 감정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그녀는 그의 자신의 선택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그녀는 감정도 자신의 삶도 모두 되찾고 그 또한 그의 선택을 되찾습니다. 제목인 「내일은 아마 없을 테니」는 자칫 우울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의 의미는 내일

은 아마 없을 테니 오늘은 하고 싶은 걸 하자, 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기에 나온 제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기 싫은 일을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가끔 이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잊고는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무감각하게 누군가의 결정에 휩쓸려 하루를 보냅니다. 하루하루를 저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선택으로, 행복하지 못한 오늘의 저로 보냅니다. 오늘의 저의 행복을 있을지 없을 지도 모르는 미래의 저의 성장으로 맞바꾼 채로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미래의 나는 행복한 게 당연하기에 오늘의 나는 그걸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아무도 모르면서 왜 내일을 위해야 합니까.

주인공들의 이름 중 여명이라는 이름은 미래를 뜻합니다. 뜨는 새벽, 남은 인생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주연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연 배우 할 때의 그 주연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연을 뜻합니다. 내일의 나에게 지는 사람과 하루하루를 타인의 선택에 휘둘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제대로 된 오늘과 내일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동정과 오지랴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했습니다. 오지랴, 저는 도움을 주지 않는 오지랴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안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명절만 되면 학교에 대한 걱정 아닌 걱정을 어찌나 많이들 해주시는 지. 남의 인생에 왜들 그리 관심들이 많으신지 그 모든 이야기들이 스팸 메일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습니다. 받기로 한 적도 없는데 멋대로 보낸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처럼 제가 싫어하는 모든 오지랴의 특성은 말로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오지랴이요.

동정에 대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도움 안 되는 동정은 자기 위안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오지랴와 같은 맥락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불쌍하다고 하는 것이 자신을 위안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밥 한 끼 안 사는 사람들이 나를 멋대로 동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동정과 오지랴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설에서 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인 3인칭 시점으로 일부를 발췌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없을 테니 중 일부 (발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

그는 결국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작은 스케치북을 챙기고 오늘 듣게 될 강의 자료를 챙긴 후 컨버스 화를 신고 집을 나섰다. 요새 날이 늦여름이라곤 해도 제법 추워 신발코

를 바라보며 대학교로 향했다.

그는 대학에 도착해 잠시간 정문에서 머뭇거렸다. 일주일간 다녔다고는 해도 너무 커다란 대학은 절로 그의 기를 죽이곤 했다. ‘내가 정말 이런 곳에 다녀도 되나’ 하고 말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잘 떼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역지로 Ep어 강의실로 향했다. 닭장 같이 빼곡한 강의실중 오늘 그가 들을 강의가 하는 곳을 가까스로 찾아낸 그는 앉았다.

곧이어 들려오는 교수님의 출석 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제 들었던 소문을 곱씹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온 적 없었던 자신의 학우에 관한 소문을.

‘나의 삶은 다채색의 팔레트처럼 가끔 회색이거나 검정인 날도 있지만 눈부신 노랑인 날도 있었으며, 때로는 차분한 파랑, 온화한 초록인 날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그런데 그녀의 삶에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회색, 회색 뿐 일거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그는 결국 그 학우를 동정하고 말했다. 정작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왜, 울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뭔데? 얻어 봐야 이제와선 아무 감정도 못 느끼잖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정은 그저 자기 위안일 뿐인 것을.

그런 생각을 하며 별 관심도 없는 수업을 꾸역꾸역 듣고 다음 강의실로 향하려고 짐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리고 그의 세상은 순간 암전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했다. 다음에도 뭐라고 했던 것 같으나 그는 이미 달리고 있었기에 잘 듣지 못하였고. 그 달리던 과정 중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스케치북이 그가 동정하던 그 소문의 학우의 얼굴의 내던져지는 것도 모른 채.

도착한 병원에서는 단순한 과로라는 말을 그에게 전해왔고 한숨을 돌리며 생각했다. ‘단순 과로. 당신의 아픔은 그 짧은 글자로 담기는구나.’ 어색하기 그지없게 병실에 쓰인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물병을 꺼내려 가방을 여는 순간 제 스케치북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곤 강의실에 두고 왔겠거니. ‘어차피 내 손으로 버리지도 못할 것 이렇게 찾지 못하여도 나쁘진 않겠네.’ 생각했다. 다음날 그에게 무슨 상황이 닥칠거라곤 상상도 못하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오늘도 알바를 알아보며 잠을 청했다. 그는 꽤 오래 전부터 알바를 알아봐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자 그 사정이 더욱 급해졌다. 그러나 그는 감정 과잉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고용하기를 꺼렸던 탓에 사실상 이리 알아보며 잠을 청하는 것도 무용하다고 보아야 했다.

다음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걸 그의 어머니가 우기는 바람에 결국 학교에 오고 만 그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어재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강의실에 앉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 왔다. 이 스케치북의 주인이 너냐며. 그가 줄곧 곱씹던 소문의 주인공이 그가 차라리 사라지기를 빌었던 스케치북을 들고선 말을 걸었다. 그는 당황하여 말했다.

“아, 제꺼예요. 근데 이건 어디서? 완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는 무감각하게 말을 이었다.

(4) 좋은 사람

세 번째로 쓴 소설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일수도 피해자 일수도 있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타인의 자해를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일처럼 느껴지는 해화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주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손으로는 죽지 못하는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히키코모리이자 작가인 윤 산이라는 이도 있습니다.

둘은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되고 그것이 저주를 풀 단서라고 생각한 해화는 산을 쫓아 갑니다. 그렇게 만난 둘은 그녀는 자신의 저주를 풀기 위해 그는 집밖으로 나가고 부모를 찾기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 서로를 줄곧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두려움을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살아가는 이유도요. 그러던 중 산의 부모가 죽었음을 해화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산의 살아가는 이유가 부모에게 복수하는 것임을 안 해화는 그것을 숨깁니다. 그러나 산은 얼마 안가 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찾아갑니다. 결국 해화는 부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과거와 함께요.

그녀는 사람의 죽음을 방관 했습니다. 해화의 학창시절, 해화의 학교에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왕따가 있었습니다. 해화는 그 폭력을 묵인했습니다. 해화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으나 결국 해화도 묵인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화는 반에서 그 애가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눈이 마주 칩니다. 그러나 해화는 도망칩니다. 다음날, 평소와 같이 가장 먼저 향한 반에는 그 애가 의자위에 서있습니다. 그애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어야만 그 침묵을 관둘 수 있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목을 맵니다. 그 뒤로 해화는 자해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의 두려움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가 있음으로 서로의 두려움을 조금은 극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은 언제나 나는 내일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의 나는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우리는 내일의 날씨조차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맛있는 밥을 먹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재미있는 책을 읽을지도 모르고 오늘은 끔찍했지만 내일은 더 나을 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게도 내일이 싫었던 날은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내일도 끔찍할 것이라 단정 지었습니다. 마치 내일을 이미 살아본 적이 있는 것처럼 저는 내일이 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저 또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었기에 행복한 내일이 올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더 이상 어제에 목을 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조금 우

울하고 부정적이지만 착실히 내일을 향해 기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싫어했습니다. 뻔한 내일을 가지고 행복을 말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배부른, 이미 다 지나온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 말이 그렇게 틀렸다고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의 저보다 더 행복해졌기에 내일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쉽게 내일의 가능성을 믿어주었으면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귀에 못 박히듯 듣는 뻔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밑에 한 장을 발췌해 두겠습니다.

좋은 사람 중 일부 (발췌)

“일어나요.”

그는 말해줄때까지 이려고 있겠다 했고 그는 결심을 이미 굳힌 듯 싶었다. 나는 결국 그에게 약속을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었다. 안 지킬지도 모르지만 우선 작은 것이라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었다.

“그럼 약속해요. 죽지 않겠다고.”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줄테니까 일어나요.”

이것을 말하면 당신은 살아줄까. 나는 잔뜩 긴장해 말을 꺼냈다.

“죽었어요. 자살,”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다 일어나 애써 웃으려하며 말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자살했다고. 빛에 쫓기다가 죽었다고.”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아 중얼댔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고서는 죽어버렸다고.”

그의 눈에는 기어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를 꽉 깨문 채 부들부들 떨며 간신히 소리를 죽이고 있는 그는 입을 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 나는 그를 어찌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무너질 것 같은 몸으로 내 앞에 버티고 앉아 말했다.

“죽여줘요. 죽여줘 제발. 이제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 지긋지긋 해. 제발 좀 내게 죽을 권리를 줘요.”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두려운지. 나는 하얗게 새어가는 시야를 다잡으며 생각했다. 죽지마요. 제발. 내 앞에서 그 애처럼 스러져 가지마. 그가 죽지 않는다면 빌 자신도 있었다. 죽지마.

“죽고 싶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래도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나는 덜덜 떨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보듬었다. 우리는 삶에 지쳐있었고 사람에게 지쳐있었다. 지친 몸뚱아리를 서로에게 잠시 기대고 나는 그를 도닥였다.

“죽지 말아요. 왜 죽지 않아야 하는지는 나도 몰라. 내가 너무 이기적인 소리를 하는 걸지도 몰라. 그래도 내일은 어떨지 모르니까. 내일의 날씨조차 고작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 없듯 앞날 또한 마찬가지로. 내일은 맛있는 밥을 먹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재미있는 책을 읽을지도 모르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번 더 웃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지 말아요.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웃음의 이유가 되어줄게요. 죽지 말아요. 내가 당신의 삶의 이유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죽지 말아요.”

아, 그래. 아픔의 경중은 없다지만. 팔이 잘린 사람은 팔이 부러진 사람의 아픔을 공감 못하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그의 고통의 근처에 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부러진 팔으로나마 그를 끌어안는 것. 그는 그날 많이 울었다. 사람이 이리도 간단히 무너진다는 것이 겁이 났다. 나무토막 하나를 잘못 뺀 젠가가 간단히 와르르 무너지듯이 그도 와르르 무너졌다. 그게 겁나 그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다.

5. 작품 비치

10월 6일 가을 축제날 작품 전시를 하였습니다. 작품은 세 개의 작품과 작가의 말 그리고 습작이 들어간 가제본 하나와 소설 각각 하나씩의 인쇄본, 그리고 작품 설명을 비치해 두었고 함께 평가지도 두었습니다. 작품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중간에 작품 발표를 하고 5시까지 전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작품 발표를 했고 작품 전시 때 나온 평가는 2개였습니다. 아무래도 소설이라 분량이 길어 그런듯해 미리강 방에 비치해두면 좋겠다고 생각해 미리강 방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제본이 나오면 도서관에 비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III. 결론

1. 작품 평가

1) 간디인 평가

(1) 전체 평가

미리강 방과 작품 발표 때 모두 아무래도 제 논문이 단편소설집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읽기에는 분량이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으신 분들이 전체 평가이지만 상세 평가의 분량의 수준으로 길게 적어주셨습니다.

- 다 읽지 못해 맞을지 몰라요. 지금 저는 내일은 아마 없을 테니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떤 기준에 맞춰 사는 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 방탄소년단 un연설을 듣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라'는 부분에서 힘을 얻었는데 오늘 짧게 들려준 '시선'에 대한 이야기가 짧지만 공감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세요. 책이 나오면 좋겠어요.
- 모호한 궤도에서 공감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위로받으며 치유되는 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 짧지만 작가의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에 도움이 되었어요. 시간이 짧아서 다 읽어볼수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약간 읽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빼면 흥미롭고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어요.
- 초반 부분이 살짝 어려웠어요. 단어가 어렵지는 않는데 문장이 어렵다고 해야 되나....?
- 작가의 화두는 '죽음'인가 봅니다. 죽음에 압도되지 않고 죽음 뒤의 삶을 보는, 그것을 발견하는 걸음이 감동입니다. 글쎄요. 소설이 독자에게 뒤로가 된다면 아직 살만한 세상 이겠지요. 소설 '쓰기'가 작가님에게 위로가 되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다만, 그 사실이 독자로서 기쁩니다. 건투를 빕니다!! 글쓰기도, 그대의 청춘도 건투!
- 중학생들이 읽기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 중간부터는 빨리 읽혀서 좋았고, 우주? 행성? 에 비유해서 쓰는 게 좋았어요. 파이팅!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많은 걸 보니 아무래도 제 실력의 한계로 읽기 편한 글을 만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2) 상세 평가

(익명)

- 난 평가를 잘은 못하겠지만 그치만 재미있는 건 확실하다. 이글에 느낌이 좋다. 특히 소소한 일상들이 글로 써있어서 이야기와 어우러져 그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는 것 같다. 빨리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현이가 취미라도 진짜 죽을 때까지 소설을 쓸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너무 좋겠다.

- 기대하던 소현이의 논문을 읽어보게 되어 영광이었다. 평소 글쓰기를 좋아하는 소현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소현이의 글을 본건 처음이었다. 우선 작품을 완성한 (무려 소설 3편이나)소현이에게 박수를 보낸다. 짹짹자작

항상 밝고 시끄러운 줄만 알았던 소현이에게서 굉장히 심오하고 모호한 속내가 있을 줄 몰랐다. 개인적으로 글은 쉽게 잘 읽혀졌다. 현실에서 고민하고 공감할 법한 내용이어 몰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다.

또 소현이 만의 표현법이 감탄을 자아냈다. 이 글은 감히 16살 학생이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글이다. 3개의 글 중 내일은 아마 없을테니 라는 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고 싶은 것과 해야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현시대 학생들과 또 나와 비슷하다고 느꼈다. 오랫동안 이여명이라는 이름의 뜻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글을 읽으며 마음이 차분해지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생각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글인 것 같다. 어른이 되어 다시 이 글을 읽어보았을때 또 어떤생각이 들지 궁금해졌다. 소현이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마도 백과사전일 것 같다. 풍부한 생각과 감성으로 논문이 끝나더라도 꾸준히 본인만의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수고한 소현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2) 전문가 평가

김영지 작가님 - 소설 <아나하라트> 1-5권.

평가를 논문 발표 주간에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파일을 넘겨드린 상태입니다.

박세열 작가님 - 여행 에세이집 <보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외 1권.

10월 안에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파일을 넘겨드린 상태입니다.

김현영 작가님 - 소설 <하루의 인생> 외 5권.

역시 10월 안에 주신다고 하였고 파일을 넘겨드렸습니다.

3) 자기평가

전체적으로 제가 담고 싶은 의도를 저의 최선으로 담아낸 것 같아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실은 작품을 더 퇴고를 해서 읽기 편하고 제 마음에 드는 글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능력 밖에 일입니다. 특히 평가에도 나왔듯이 문단과 문장이 길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매끄럽지 못한 전개가 마음에 걸립니다. 찾아뵈었을 때 전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고치려고 노력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줄줄이 말했으니 마음에 드는 점을 이야기 해 보자면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분량이 제법 긴 글을 완결 내었다는 것, 저는 기한 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작품에 제법 만족하고 있고 제가 들인 노력에 제법 만족하고 있습니다.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기한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초반, 문헌을 아주 조금 보며 게으름을 피웠던 까닭에 제본으로 100여 쪽 가량의 글을 기한 내에 쓰는 일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실은 기한 안에 절대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낸 것이 조금 신기하기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뵈었더니 많은 충고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또한 아쉽습니다. 역시 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단편소설 집이 분량이 많고 긴 편에 속해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한정적인 사람들만 읽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열심히 쓰기도 했고 제 논문의 의의는 누군가의 위로와 공감에 있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읽어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100여 쪽의 글을 제가 정말로 완결 냈다는 점이 신기하기도 하고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단편 소설을 완결을 목표로 쓰는 것이라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어찌저찌 잘 완결이 나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책 편집도 했습니다.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지만 다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한 분들>

제가 논문을 시작한 계절 역시 지나고 옷도 제법 두툼해졌습니다. 몇 개의 계절을 지나오며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래에 도와주신 분들을 적겠습니다.

저의 담당 선생님인 아름쌤, 자주 찾아가 징징대는 하소연 들어주시기 힘드셨을텐데 들어주시고 격려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문 끝나면 말 잘 들을게요. 덕래쌤, 제가 분량도 많은데다 재미도 없고 맞춤법도 틀린 소설을 가져갔는데도 퇴고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쌤 제가 정신 못 차리고 퇴고도 안 돌려서 가져간 거 꼼꼼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고 재미없는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곤쌤, 바쁘신 와중에 분량 긴 글 시간 내주셔서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본과 인디자인 갑자기 물어봐도 친절히 대답해주고 도와준 수민언니 감사합니다. 언니 아님 죽을 뻔. 사실 단편 소설집이라 길어서 읽기 귀찮았을텐데 읽고, 감상까지 보내준 익명 언니오빠님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지 보내준 재하 오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표지 진짜 마음에 듭니다. 제 노잼 논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방에서 고민해주고 그놈의 시나리오 같이 짜준 김서준 고맙다. 그렇지만 내년엔 보자 ^^.

그리고 자유분반. 다들 자기 논문 쓰고 다른 애들 논문도 같이 고민하느라 고생 많았음. 이제 논문도 끝이 보이니 논문이 끝나면 잠부터 늘어지게 한 숨 자야지, 생각하고 있음. 그리고 논문 쓴다고 많이 배려해주고 같이 고민해준 공기반 소리반 고마워요. 제주도 가서 신나게 놀시다. 그리고 제 징징거림을 들어주신 많은 사랑스러운 분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 윤수민(2017),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에세이집 만들기』, 15학번 논문집.
- 차한비(2014) 『용기를 주제로 소설쓰기와 작곡하기』, 12학번 논문집.
- 앨런 쉘리토(2010), 『장거리 주자의 고독』, 파주: 창작과 비평.
- 김언수(2013), 『잼』, 파주: 문학동네.
- 구병모 (2013), 『파과』, 자음과 모음.
- 구병모 (2012), 『피그말리온 아이들』, 파주: 창작과 비평.
- 구병모 (2011), 『아가미』, 자음과 모음.
- 구병모 (2016), 『한스폰의 시간』, 위즈덤하우스.
- 은유 (2015), 『글쓰기의 최전선』, 메멘토.
- 스미노 요루 (2017),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마포: 소미미디어.
- 김려령 (2009), 『우아한 거짓말』, 파주: 창작과 비평.
- 김애란 (2005), 『달려라,아비』, 파주: 창작과 비평.
- 김애란 (2012), 『비행운』, 문학과 지성사.
- 김애란 (2017), 『바깥은 여름』, 파주: 문학동네.
- 김사과 (2011), 『나b책』, 파주: 창작과 비평.
- 최상희 (2014), 『델 문도』, 파주: 사계절.
- 한 강 (2014), 『소년이 온다』, 파주: 창작과 비평.
- 김현영 (2012), 『하루의 인생』, 자음과 모음.
- 김형원 (2015), 『소설읽기를 통한 글쓰기가 청소년의 치유의 미치는 효과 연구』, 서울: 한국
외국어대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 성상희 (2013), 『소설의 치유적 기능 고찰 :첨부작품을 중심으로』, 서울: 중앙대 소설 전공 석
사학위 논문
- 박 준 (2017)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난다.

<부록>

1. 일지

4. 12

음 오늘은 계획서를 쓰는 날이다. 힘들다 오늘 소풍 다녀와서 계획서를 쓰다니. 쓰기 싫다. 그래서 안 썼다. 내일의 나아 부탁해.

4. 15

지금은 2시 50분이다 물론 새벽이다, 바보 같은 12일의 강소현 때문에 내 휴일이 날아갔다. 에휴, 기껏해야 이틀정도인 가정학습에도 쉬지 못한다니.. 내가 왜 그랬지.. 졸리다. 누가 그랬지?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 일하라고? 그렇다면 나는 매일 내일의 나한테 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일까... 무책임하게 매일 매일 일을 미뤄서 일단 오늘의 내가 이긴 다음에 내일이 없어진 미래의 내가 또 내일로 미뤄서 매일 매일의 내일의 나에게 이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아 참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는 노래가 있던데 이 노래 진짜 싫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행복의 조건마저 포기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같잖아. 이건 진짜 관련 없는 얘기네, 이야기가 이상한 데로 빠졌다. 지금은 3시다. 이제 자야지. 그건 그렇고 논문 일지에 이런거나 적어도 되는 걸까? 이제 3시 1분이다, 진짜 잘래.

4.25

오늘은 논문 계획서 발표를 했다. 피피티로 발표를 하면서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나는 긴장 안 할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무슨 커피 가져오라는 진동인줄 알았다. 그리고 논문 계획서 발표하며 여러 피드백을 들어본 결과 설문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좋은 결정인 것 같다. 사실 왜하려고 했는지 나도 이해가 잘 안 간다. 설문을 안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아무도 그런 우울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빠밤. 하나도 놀랍지 않군요!

5.1

계속 습작을 조금 조금 쓰고 있다. 습작을 많이 써야 글을 잘 쓸 수 있으니 많이 써야하는데 요즘 너무 바빠 많이 쓰지 못했다. 아, 작품 분량은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우울해... 나는 뭐했니....

5.15

아마 논문 주제를 바꿀 것 같다. 수필은 너무 흔하기도 하고 다들 나에게 단편소설을 써보게 어떻냐고 추천을 해서 한번 해볼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아직은 고민 중이다. 어찌지?

6.10

음, 주제를 바꿨다. 단편 소설이다. 단편소설집으로 하여 모두 세가지 소설을 신기로 하였고 두가지 소설의 설정을 잡았다. 괜찮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열심히 써야지.

6.27

내가 왜 주제를 바꿨었지?? 내가 바보인가? 수필이 이만 오천배는 쉬웠던 것 같다. 미쳐가고 있다. 매일 노트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노트북 공적 막히면 인생이 망할 것 같다. 신이시여 노트북 공적 안 막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가지 소설 중 마지막 소설 설정과 시나리오까지 모두 잡았다!

7.16

방학이다. 음, 논문 하나도 안썼다.는 사실이다, 방학 때는 하나도 안썼다. 왜냐! 두통 슬럼프

가 다시 오왔기 때문이지! 기분이 좋으면 글이 안 써지는데 요즘 기분이 너무 좋다 헤헐. 암튼 세가지 소설의 경과는 하나는 반절 정도 써서 12pt로 여덟장 썼고 하나는 4/1 정도해서 4장 썼고 하나는 5/1 정도해서 3장 썼다, 음 완전 파탄이네... 망했다. 다른 언니들 보니까 이때쯤 막 다 쓰고 그랬던데 어제의 나 뭐한 거야!!!!

7.30

나는 뭐하는 애일까? 정말 궁금하다.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설정을 너무나도 허술하게 잡았다. 그래서 자꾸만 작품을 쓰다가 막힌다. 그리고 작품의 래퍼토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조금씩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다. 우선 주인공들의 만남 후가 특히 아무것도 짜여진 것이 없어 수정해야 할 듯 싶다.

8.1

고민이 있다. 이 망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지와 바로 본문이다. 그렇다. 나는 본문을 하나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은 정말로 글을 쓴다 외에는 어떠한 작업도 없어 그것을 어찌 설명해야 하는가가 나의 과제다.. 어렵네...

8.3

소설을 썼다. 한줄이나 쓴걸까? 나는 뭐하는 걸까. 요즘 학교 안 간다고 해이해졌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 고민만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책을 읽었다. 제목은 장거리 주자의 고독. 누구 소설인지라 까먹었다, 이따가 보고 와야징. 참고로 단편 소설이다. 이걸 딱히 내가 원하는 내용은 아니다. 근데 왜 읽었을까??? 그냥 사실 단편소설은 닥치는 대로 읽고 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작품의 분위기는 내가 원하는 느낌이었다.

8.5

오늘은 소설을 썼다, 사실 내 논문이 소설 쓰는 거 외에 할 게 더 있을 리가? 없잖아!!! 하하 하하 그러나 나는 그 하나 하는 것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 반성을 좀 해야하는 거 아닐까? 소현아? 왜 사니?

8.6

오늘은 소설을 조금 썼다. 경과를 세소설중 하나는 9장 하나는 6장 하나는 4장을 썼다!! 음 내가 말하고도 정말 조금 썼군... 할말이 없다, 나는 쓰레기다. 따흐흑. 암튼 지금 뽀이 왔으니 내일까지 열심히 써야지!! 아오 기 빨려.

글쓰면 나만 기 빨리나? 암튼 지금 글 쓰다 와서 제정신은 아니다. 널 또 써야지.

8.10

이건 글이 아니다. 이건 똥 쓰레기다. 이건 똥이다. 나는 똥을 싸질렀다. 아하하하하하.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으로 삼행시 어떠세요? 쿨! 자: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맞추어 나가는 것 그 사이의 괴: 괴리감이 존재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너는 알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을, 그래 아마 모르겠지. 네가 감: 감감무소식인지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

8.15

오늘은 습작을 썼다. 재미없다. 소설인데 습작으로 수필을 써도 되나 싶다. 그래도 자전적 이야기는 아니니 괜찮지 않을까 싶다.

8. 18

오늘은 모호한 궤도를 썼다. 원래는 돌아가면서 썼는데 이제부터는 하나에 집중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선은 모호한 궤도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제부터 모호한 궤도만 써야겠다,

8. 20

모호한 궤도를 썼다, 이제 그 많은 이름들이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그러나 여전히 글 쓰는 것은 좋다.

8. 25

모호한 궤도 썼다. 이제는 주인공의 지웃만 들어도 토가 쏠린다. 왜 내가 논문으로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글이 적고 싶은데 논문으로 이미 모든 체력을 소모해서 다른 글을 쓴 정신이 없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8. 28

오늘은 하나의 소설을 완성했다. 죽을 것 같다. 모호한 궤도라는 소설로 a4용지 10pt 14장으로 완결되었으며 예상보다 한 장 적다. 퇴고하면 또 어찌 될지 모르니 지켜 봐야겠다. 내일부터는 마법소년 미미라는 가제의 소설을 붙들 예정이다.

몰라

오늘은 덕래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주로 맞춤법에 대한 지적과 호흡에 관한 지적이었다. 수정 수정 해야 한다, 덕래쌤이 에이포 한가득 조언과 칭찬을 해주셨다. 너무 감사했다. 그러나 수정할 거리가 한가득이다. 나는 글을 그만 두어야 할 것 같다. 호호호 농담 ><

9.24

가정학습입니다- 에이이이이이이이에 마법 소년 미미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다. 결말.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결말을 잘 짜면 좋겠다, 그리고 모호한 궤도는 퇴고도 완전히 끝났다.

9.28

오늘은 나b책을 읽었다. 나와 비 그리고 책이라는 인물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완벽하게 내가 원하던 분위기이다. 사실 참고 해야겠다하고 걱정하고 읽은 책은 아닌데 대박이다.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몰라

병근쌤에게 피드백을 받았다. 많은 지적과 칭찬을 받았다. 실버문이라는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마시따, 들은 이야기로는 문장이 길다는 지적이 많았다. 헤헝 어찌지 맞아 사실 나는 문장을 길게 쓰는 것을 많이 한다. 고질 적인 문제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게다가 문단도 길어 호흡이 빠르고 읽기가 불편하다. 한마디로 독자에게 불친절한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내가 소설을 쓰는 것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9.14

오늘은 논문 세미나 했다. 음..... 생각보다 많이 혼나지는 않았다, 나는 엄청 긴장하고 갔는데 1/3을 틀린거 빼고 그렇게 창피한 일은 없었다, 다행이다.

9.16

오늘은 본문을 썼다. 서론을 정리하고 용어정리를 했다. 우울함에 대한 정의 등을 내렸다,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그것을 내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다. 번역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일기 쉽게 풀었다. 어려운 말들을 너무 많이 쓴다. 소설 다 썼다. 미미 에이이이이이이이이

9.17

내일은 중간발표 날이다. 오늘도 본문 작성했다. 소설의 대한 정의를 내렸다. 여전히 네이버 지식백과는 지 지식을 자랑하는 건지 아님 지식을 알려주는 것인지를 알 수 없도록 단어를 겁나 어려운 걸 쓴다. 그래서 풀어쓰고 피피티를 만들고 본문과 함께 카페에 올렸다, 지금은 밤

이다. 그래도 제시간에 맞춰서 올려 다행이다. 지각자 많던데...

9.18

중간발표 날이었다. 오늘 병곤 쌤이 나를 칭찬 해주셨다. 사실 그때 가져갔을 때는 고쳐야 할 점을 한가득 말하셔서 고칠게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잘 썼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기분과 좋아지고 힘이 났다. 역시 칭찬이 짱이다. 그러나 칭찬만 들으면 너무 사람이 안일해 지는 것 같긴 하다.....

9.20

오늘은 본문을 썼다. 오늘은 작품을 쓴 과정을 썼다. 어려웠다. 그러나 열심히 했다. 아니 근데 사실 쓸게 없다. 글이야 마음먹고 구상 후 쓰는 게 단데 뭐...

09.23

수진티에게 퇴고할 소설을 보냈다. 미미 보냄 흠. 잘 될 수 있을까? 내 논문? 솔직히 조금 무섭다. 내가 잘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9.25

덕래쌤에게 미미를 퇴고를 도움 받았다. 고칠 부분 많다. 힘들다. 근데 사실 이소설 정말 마음에 안 든다. 그런데 그냥 기간내에 보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기한에 맞춘 느낌이 든다. 계속. 이게 내 한계인가보다. 더 잘 쓰면 좋겠다.

10. 1

앞 일지에 뭐라고 적은 건지 저때의 나를 이해 불가! 이제 작품 발표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아직까지 좋은 사람을 완결내지 못했다. 생각보다 늘어지고 있다. 큰일이다. 심지어 분량도 너무 많다. 그리고 오늘 알았는데 자전적 이야기가 아닌 수필은 엽편 소설이라고 하는 가 보다. 고쳐야 겠다.

10. 5

오늘은 작품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다! 모든 소설이 완결 났고 총주에 제본을 뽑으러 갔다. 순전한 나의 욕심이다. 으으 이 결과가 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보아야 알 일이다.

10.6

오늘은 가을 축제 겸 나의 작품 발표 날이었다. 엄마가 늦게 와서 나는 마지막으로 작품의 발표를 했다. 그리고 작품 전시에 평가가 조금은 있겠지 싶었는데... 응 세 개... 솔직히 조금 속상했다.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 쓴 것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과연 나는 이 고민을 해결 할수 있을까? 사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학교사람들이 읽지 않을 것을 알고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하고... 주제를 바꾸고 싶다. 아직도 전문가를 섭외하기 못했다.

10. 7

수진쌤에게 퇴고 받았다. 혼났다. 퇴고하고 보내라고 했다. 하할 그러게요... 나는 뭐하는 걸까.

10.9

오늘은 전문가를 섭외했다. 김영지 작가라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정말 될 줄은 몰랐다. 으흐흠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만 읽어주겠다고 하셨다. 시간이 없으신가 보다. 그래도 좋다 나머지는 또 다른 전문가를 섭외하면 된다. 과연 그럴 시간이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10.10

오늘은 또 다른 전문가를 섭외했다. 덕래 쌤 아시는 분이다. 나는 머리가 참 똑똑하다. 이제

한명 남았다, 무슨 모험을 할 동료를 구하는 이 익숙한 느낌 뭐지...? 원X스.....? 그리고 본문을 조금 썼다, 본문....., 몰라... 망했다. 사실 글은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는다. 손가는 대로 쓴다. 끝낸다는 과정으로 나는 쓰기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전-혀 쓸게 없다.... 내 분량 어찌지? 분량이 스무쪽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빼박 2차 각이다. 왜 살지????

10.11

다른 전문가 섭외했다, 박세열 작가님이라고 여행 에세이 쓰는 분이다. 다운언니가 평가 받았던 사람이다. 후후 이제 전문가를 전부 섭외했다,

10.14

노을지는 저녁 저는 전문가의 확답을 받았습니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행복을 느껴 보아요 호호호

10. 15

망했다. 이제 논문 마감까지 4일이다. 나는 그냥 이차다. 왜 이렇게 살았니 소현아..... 아 몰라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그러나 본문을 80퍼센트 까진 끝냈다.

10. 16

내일 모래 글피가 바로 마감이다. 그런데 평가를 아직 넣지 않았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빼기다 넣어야지! 왜냐면 너무 부족해 평가가..... 그리고 오늘도 전산실에서 썩었다. 이런 썩은 인생..... 그리고 지금은 새벽 1시 반 나는 인디자인으로 편집 중이다. 행복하네..... 와.....

10.17

오늘은 정말 많은걸 했다. 우선 결론 전 까지 모든 본문을 끝냈고 편집도 끝. 이제 맞기기만 하면 되지롱... 행복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몰라 하루종일 논문만 써서 머리가 멍하다. 졸려

2. 습작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어느 푸른 봄날이었다. 우리는 학교 개학식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아직 외톨이 티를 벗지 못한 이상한 아이였고. 너는 다정하고 조용한 아이였다. 우리는 곧잘 어울려 놀았고 나는 다정한 네가 좋았다. 네가 기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로 도서관에서 만났었다. 그날 나는 가시 고백을 읽었고 너는 소공녀를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책을 바꿔 읽으며 우리는 킬킬대며 웃었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울거나 웃곤 했다. 그때마다 너는 다정한 너답게 나를 어찌지 못하고 가볍게 등을 도닥이곤 했다. 저 자신도 울고 있었으면서. 나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래, 그때의 나는 너의 그 다정함을 사랑했다. 저의 울음보다 남의 울음을 먼저 도닥이던 어찌면 답답하기까지 했던 네 그 다정함을 사랑했다.

그때를 네가 기억할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함께 등하곳길을 걷던 그 날들을. 너는 말이 없고 다만 타박이는 발걸음소리만이 가득한 여름의 저녁이었다. 땀을 들이다. 내가 서툰 솜씨로 오늘 점심은 맛있었지 라는 식의 시답잖은 말을 꺼내면 너는 다만 가만가만 내 이야기를 경청할 뿐이었다. 그러다 가끔 유독 덜렁대던 내가 넘어지곤 하면 너는 가방에 들어있던 반창고를 꺼내 붙여주었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좋아 오히려 더 자주 넘어지곤 했던 것 같다. 그래, 그때의 나는 너의 그 평화로움을 사랑했다.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던 마음이

놓이던 네 그 분위기를 사랑했다. 넘어지면 흥이지 말라고 붙여주는 반창고가, 네 그 상냥한 마음이 좋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너와 멀어진 건 그해의 겨울이었다. 눈이 펄펄 내리던 겨울날 너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 너는 점점 비밀이 많아갔고 나는 너와의 침묵이 더는 평화롭지 않았다. 항상 네가 다른 이와 대화 하고 있었기에. 나는 점점 너에게 거리감을 느꼈고 너는 작은 일로 쉽게 짜증을 내었다. 우리는 점점 붕괴되었고 결국 남는 것은 너와 나였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너와 만났던 것과 꼭 같은 그 푸른 봄날 우리는 인사조차 않는 사이가 되었다.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너를 미워하기도 많이 미워했다. 그리고는 마음을 꾀꾀 걸어 잠그고는 말했다. 다시는 아무도 여기에 들이지 않으리라고 나는 그렇게 어리고 어렸다.

다 자란 지금은 네가 보고 싶다. 글썽 왜일까? 어젯 저녁 비밀의 화원을 서점에서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나는 또다시 너와의 한때를 떠올리고 말았다. 글썽? 비밀의 화원을 사려고 들른 서점 때문이었을까. 아님, 너와 걸었던 길과 비슷한 온도의 어젯 저녁 길 때문이었을까. 그 건 그리 중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다만 내가 그리워 한 것은 너의 다정함. 다 자란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다정함. 나는 사무치는 슬픔에 이불자락을 끌어당기며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 너의 다정함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이 있을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랑하며 가끔은 너를 생각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무리 살아도 내일이 오지 않았습시다. 어제와 오늘의 반복이었습시다. 저는 발전이 없었고 어른이 되는 것은 겁이 났습시다. 좋아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심지어는 잘하는 일 까지도 없었습시다. 이런 제가 어른이 되어봤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어른이 되는 상상을 하면 끔찍하기 만 했었습시다. 그때도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어른은 더 끔찍했었습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도태당하니까요. 저는 내가 도구도 아닌데 하며 중얼거렸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시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어요.

꿈을 찾으라는 데 막막하기만 했었습시다. 미래를 생각하면 지도도 표지판도 아무것도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야에 버려놓고는 가고 싶은 길로 가라는 기분이 들고는 했었습시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도 그리 좋은 일은 아니고 불안하기만 하지만 하고픈 일이라도 생기면 더욱 큰일이라 생각했었습시다. 어설픈 재능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어쩔니까. 아마 저보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훨씬 많을 테고 저는 거기에 밀려 아무것도 못할텐데요. 어설픈 재능으로 어설픈 꿈에 매달리지 않기를 빌었습시다. 아무런 재능도 없다니 신도 무심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은 그리 무엇도 간절치 않던 나날이 있었습시다.

그래요, 그때의 저는 무엇도 간절하지 않았습시다. 어른이 되기가 두렵긴 했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기에 매일을 살아가기에 바쁠 뿐 내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시다. 그랬던 제가 무언가에 그리도 간절해 질줄 그때는 몰랐죠.

가끔 채 다 가지 않은 오늘을 내일이 베어 물고는 했습시다. 그렇게 물고 물린 오늘과 내일의 사이에서 저는 방향했습시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제 같길 정해 내일로 떠나는 데 저만 오늘을 살기에 급급했습시다. 이렇게 어른이 되기 싫었던 때가 있었습시다. 그러나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진 때가 있기도 했습시다. 어머니, 당신이 내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살아있기를 바

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어른이 되고픈 이유가 그것이라니 우습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무척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된 모습을 당신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의 죽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자라고 싶었어요. 어머니, 당신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모습으로 자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제법 칭찬도 받았습시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오직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에게 단 하나라도 뭔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글이 이제 제게는 꽤 재미있어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있죠, 요즘도 글 열심히 쓰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요. 가끔은 늦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가끔인 일입니다. 가끔 거르던 밥도 꼬박 꼬박 챙겨먹고 책도 잘 읽어요. 말도 이제는 잘 들을게요. 그러니 돌아와요. 어머니.

모두 당신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당신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가도 저는 무슨 저의 삶 구석구석에 묻은 당신을 지워내지 않고 싶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뒤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떠나간 뒤에 나는 가끔 당신이 그리운 밤이면 저는 당신의 기억에 코를 박고 그리운 밤을 찢어내어 당신을 울고는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당신을 기다리면서 아침은 밝아오고는 했습니다.

세계도 이제는 내일이 옵니다. 어머니, 당신이 없는 내일이.

나는 자주 울고 무너진 밤에 잠을 청하진 못했다.

나는 밤이면 나의 작은 세상이 기필코 무너져 내리리라 생각하며 떨었다. 그리고 낮이면 죽은 듯 꿈으로 도피 했었다. 나의 삶이 무너졌다. 여튼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때의 나는 하루 스무시간을 자고도 허천난 듯 계속 자려했다. 죽지 못해 잤다. 죽음과 가장 유사한 행위가 그것이었기에, 그때의 내가 가장 자주하는 생각은 어떻게 죽을까였다. 나는 죽음의 방식을 고려하면서 생각했다. 나는 영영 불행할거야. 죽지 못할테니까 영영 불행할거야. 그리곤 다시 밀려오는 현실이 두려워, 잠을 꺾꺾 밀어넣어 더 들어갈 데도 없는 눈꺼풀을 억지로 닫고 잠을 청했다.

그러나 가끔 나는 도피한 꿈에서조차 과거의 꿈을 꾸곤 했다. 나는 진땀을 흘리며 잔뜩 긴장한 채 깨서는 울며 꿈에 지쳐 목을 매달곤 했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모두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았다. 맥박 뛰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목을 매달다가도 죽기 직전에는 목을 풀어내었다. 그 시절의 나는 죽고 싶어했지만 정작 죽음이 나의 앞으로 두벽 두벽 걸어오면 지레 놀라 도망치는 겁쟁이었다.

가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가진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나의 불행의 이유는 사람이다. 나의 행복에 이유가 사람이듯 불행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항상 기분만 나빠질 뿐 불행에 대한 별다른 해답은 없었다. 다만 나의 잘못만이 보름달 휘영청 뜬 밤에는 떠오를 뿐이었다.

목을 매다는 것을 들켰다. 죽고 싶긴 했지만 그것은 죽으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고 어찌되었든 나는 그랬다. 그것은 오히려 삶을 가장 온전히 가까워서 느끼려 했다는 쪽에 가까울 터였다. 나를 정신병자로 보면서도 죽음을 바라는 나의 병이 심각하다고는 아무도 생각치 않았다. 아무도 나의 병의 이유를 궁금해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 치이면서도 치료

는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였다. 아무도 나의 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가끔 어리면 그 인생의 무게도 가벼울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나의 인생이 가벼워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나를 끝없이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떨어져도 괜찮은 나이가 어디 있다고 그 나이 때는 다 그런다고 하는지. 그때의 내가 가장 궁금해 한 것은 그런 것이었다.

그때의 나는 저녁에 목을 매고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죽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나날을 얼마나 보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그때의 나는 내일보다 두려운 것이 없었다. 내일이 가장 두려웠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가고 아침이 오면 살아가야 하는 낮이 싫었고 잠들지 못하는 밤에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생각이 두려워 그 모든 것이 나를 살 수 없게 괴롭혔다.

나는 가끔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 가면 나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이었고 나 또한 사람이라 그런가 나를 괴롭혔다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오면 조금 나아지는가 하다가도 돌아오면 밤에는 여전히 죽을 것 같았다. 나는 오래된 고목나무 처럼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천천히 괜찮아 지는 척을 했다. 이제는 건강한 척을 했다. 아무도 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건강한 척을 하는 것은 쉬웠다. 완전히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할 때쯤 나는 밤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에 대해 생각하며 벌벌 떨었다. 밤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그렇게 밤마다 울곤 했다.